

## 맥베스의 시간인식과 아이러니

송 일 상 \*

### I

인간 세계에 있어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간다는 인식은 옛날부터 보편화되어 왔다. 시간이 흐른다면 시간에 대한 인식은 시간의 흐름의 방향으로 인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간의 속성은 인간의 의식구조와 동일한 맥락을 지니지만 때로는 인간은 이러한 흐름을 역전시켜 시간의 의미를 변형하여 확대 해석해 보이는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간의 흐름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사물이나 행위도 '시간의 축'(axis of time)을 따라 확장되고 변화하며 어제와 오늘이라는 시간 또한 동일할 수 없는 것이다. 시간 자체가 이처럼 한 순간도 머물지 않고 부단히 흘러가면서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모든 존재가 시간 속에서 필연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간의 변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극의 진행은 본질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이나 장면의 변화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시간 자체의 변화과정에서 현재가 미래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밀려나고 과거는 미래에 의해 밀려난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라는 시간은 엄밀히 말하면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 역시 현재 속에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현재를 밀어내고 현재로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는 존재인 동시에 비존재가 된다. 이러한 시간의 속성상 인간의 시간에 대한 욕구는 현재를 포착하여 영원한 현재를 성취하려는 갈망 즉, 영원 또는 무시간에 접근하려는 시도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인간은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시간과 더불어 고뇌하고 시간 속에 잠겨서

그 시간으로부터 해방이나 탈출을 시도하려 하지만 결국에는 시간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오직 현실에서 시간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영원으로 향하는 죽음뿐이다. 삶든 죽든 시간을 받아들이고 시간의 과정을 밟으면서 삶의 시작과 종말을 맞이해야만 하는 인간의 숙명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비극적인 면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세에 접어들면서 인간의 모험심과 탐구정신으로 인해 새로운 신세계가 발견되면서 기존 시간에 대한 사고의 대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당시, 엘리자베드시대의 시간의 개념은 우주 천체의 운행과 자연의 질서인 계절의 순환이나 식물의 성장 등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의 자연스런 흐름은 계절의 순환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왕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현세의 조화로운 질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신세계의 발견과 함께 시간의 개념은 기존질서의 파괴에 작용하는 힘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러한 모험과 탐험의 시대적 변화 속에서 셰익스피어는 이러한 시간의 양면적인 개념이 그의 모든 작품에 걸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작품 중에서도 특히 「맥베스」(*Macbeth*)에 나타난 시간의 변모는 주인공 맥베스(Macbeth)의 시간에 대한 인식이 첨가되어 이 비극의 가장 핵심적인 비극적 인식과 관련을 맺고 있어 이러한 시간 인식이야말로 이 작품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바바라 파커(Barbara L. Paker)는 맥베스에 나타난 시간을 두 가지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첫째는 현재와 미래가 인과관계를 맺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역사상의 양상이며 이는 계절의 순환과 같은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이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은 지금까지 질서와 조화의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고 식물의 성장과 그 수확에 비유되어 왔다. 따라서 한 나라의 국왕은 바로 이러한 자연적 질서의 개념인 시간의 정상적인 순환의 핵심으로 자연의 성장과 그 열매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시간의 양상이 맥베스에 의해 인식되는 개념이다. 즉, 현재와 단절된 미래만을 획득하고자 하는 그의 시간 개념으로 미래를 성취한 다음에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기를 갈망하는 비정상적인 시간의 흐름이다.(484-85) 다시 부연 설명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의 의식의 흐름은 바로 과거가 우리 기억 속에 살아있고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주고 있는 한 현재와 별다른 없기 때문에 성립된 시간의 개념이다. 이와 달리 맥베스는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획득한 후에는 완전히 그러한 과거와 차단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상적인 시간에 대한 왜곡과 더불어 그의 비극은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그의 비극적 인식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며 과거는 언제나 의식속에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성립되고 있다. 구지(Luisa Guj) 역시 과거와 유사한 맥베스의 시간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구지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개의 연속성은 역사적, 객관적 시간들 즉, 사건들이 일어나는 직선적 연속체에 속하고 있다. 맥베스의 시간의 주관적 경험은 이러한 자연적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맥베스는 두가지 면에서 시간을 강요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던칸왕(Duncan)의 죽음을 재촉함으로써 시간을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벵코우(Banguo)의 후손이 왕위 계승을 저지함으로써 시간의 자연적 흐름을 억제시키고 있다(179-80).

한편, 톰 드라이버(Tom F. Driver)는 일반적으로 시계와 달력, 해, 달, 별의 움직임에 의해 측정되는 시간을 "연대기적 시간"(chronological time)으로, 극의 전반적인 행동을 지배하는 시간의 질서를 "신의 섭리에 의한 시간"(providential time)으로, 그리고 맥베스에게 속하는 시간표 즉, 시간의 이해를 "맥베스의 시간"(Macbeth's time)으로 각각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293). 마후드(M. M. Mahood) 또한 셰익스피어가 시간의 주체를 맥베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에 착안하여, 시간에는 첫째, 시간의 길이와 범위, 둘째, 지속성과 상관 없이 포착되는 점으로서의 시간, 셋째, 무한한 지속성, 이상의 세 가지 양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맥베스에 적용해 보면, 맥베스는 둘째에 해당하는 시간의 개념만을 갖고 있으며, 맥베스 부인(Lady Macbeth)은 첫째에 해당하는 개념을 갖고 있다. 이들과 대응이 되는 던칸, 맥더프(Macduff), 말컴(Malcom)은 영원한 자연계의 천체의 주기성을 상징하는 셋째 시간의 개념을 각각 대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마후드는 맥베스의 살인행위를 시간을 왜곡하고 부분적인 개념으로 적용함으로써 시간을 질서로 위장하고 속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205)

결국 맥베스는 시간의 정상적인 흐름인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자연적인 흐름을 거부하고 오로지 미래만을 성급하게 앞당겨 획득하고, 그 후에는 자신의 의식 속에서 과거를 제거하고 현재와 단절된 채 다가오는 미래를 거부하면서 앞당겨진 현재 속에서 자신의 왕국만을 건설하려고 했다. 그러나 맥베스는 이러한 시간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시간의 자연적 질서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아내가 죽은 후에 최후를 맞이한 비극적 상황에서 깨닫게 된다. 아울러 이러한 깨달음의 시점이야말로 바로 그의 비극적 인식이 되는 비극적 아이러니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맥베스』에 나타난 맥베스의 시간에 대한 인식이 시간과 식물의 이미지를 통하여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시간의 흐름은 계속성과 연속성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시간의 정상적인 흐름은 식물(plant)의 성장에 종종 비유된다. 엘리자베드 시대에는 당시의 시대적 정신과 사상으로 인간의 성장을 식물의 성장에 비유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여기에서 정원(garden)을 소우주로 보고 그 정원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의 성장과 그 풍요로운 수확은 국왕을 위시하여 자연스런 질서의 흐름으로 규정하여, 이 흐름에 어긋나는 악한이나 자연스런 질서를 거역하는 인간을 정원이라는 소우주에서 자라고 있는 잡초(weeds)나 불모의 식물로 취급했다. 이러한 식물은 결국에 가서는 말라 시들어 버리는 나뭇잎 등으로 묘사되었다. 극의 시작하면서 던칸왕은 승전하고 돌아온 맥베스와 벵코우를 보고 이들을 축하하면서 “짐은 그대들을 식목하기 시작했으나, 잘 성장하도록 힘쓰겠소”(I have to plant thee, and will labour/To make thee full of growing. 1.4.28)라고 다짐한다. 여기에서처럼 식물이라는 이미저리에 내포된 시간의 기법은 자연스런 질서의 흐름이며, 자연의 순환적 현상에 입각한 이미저리의 사용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식물의 성장과 수확 그리고 다시 자연의 순환에 의하여 싹이 트고 성장과 수확이 반복되는 것은 노르둡 프라이(Northrop Fryer)가 셰익스피어의 희극의 근본원리를 탄생, 죽음, 그리고 재생이라는 “자연의 순환”(cycle of nature)으로 파악한 것(119-21)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시간의 개념은 직선상의 흐름보다는 유기적이며 순환적인 개념으로서 미래는 과거를 반복하며 그러기 때문에 현재의 안정을 확신시켜 준다고 볼 수 있다.

식물의 이미지는 계속 인용된다. 던칸왕은 맥베스가 세운 공로에 대하여 먼

저 칭찬하고 나서, 이어서 벵코우를 치하한다. 이에 대해 벵코우만이 “폐하의 품안에서 소인이 성장한다면, /그 수확은 폐하의 것이옵니다.”(There if I grow/The harvest is your own. 1.4.32)라고 응답한다. 왜 이처럼 벵코우가 맥베스와는 달리 자연적인 흐름에 담긴 반면에, 맥베스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시간을 거역하는 그의 야심과 연관시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맥베스는 이미 마녀들로부터 “만세, 맥베스! 그분은 장차 왕이 되실 분.”(hail, Macbeth! that shalt be king hereafter. 1.3.50)이라는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연의 정상적인 흐름 속에서 성장하여 열매를 수확하는 일을 거부한 것이다. 그는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 ‘장차’(hereafter)라는 말을 들은 후부터 그의 생각은 그 미래를 얼마나 빨리 앞당겨 획득할 것인가 하는 궁리에 빠져들게 된다.

한편 벵코우는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마녀에게 질문한 바 있다.

만일 너희들이 시간 속에 들어 있는 씨앗을 들여다보는 힘을 가지고,  
어떤 씨앗이 자라고 어떤 씨앗이 자라나지 않을 것을 예언할 수 있다면, 나에게 말을 하여라.

If you can look into the of time,  
And say which grain will grow, and which will not  
Speak then to me.(1.3.58)

이에 마녀들은 “그대는 왕이 되지는 못하지만, 왕을 낳으실 분”(Thou shalt get kings, though thou be none. 1.3.67)이라고 예언했다. 원래 마녀들은 자신들을 “마녀 자매들”(weird sisters)이라고 했는데, 마녀라는 의미보다는 인간의 운명을 관장하는 운명의 세 여신을 연상시킨다. 운명의 세 여신이 인간의 탄생, 삶, 그리고 죽음을 관장하듯이 이들 세 마녀는 맥베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예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마녀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지만, 비극은 모두 맥베스의 의지에 의해서 진행된다.

맥베스는 마녀들의 예언이 있고 난 후부터 “장차”(hereafter)라는 말에 의해서 그의 대부분의 시간은 미래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비된다. 이는 『햄릿』(*Hamlet*)의 비극에서 유령의 “나를 기억하거라”(Remember me. *Hamlet* 1.5.91)라는 말을 실천하기 위해 햄릿(Hamlet)이 시간을 소비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지만, 서로 미래에 대한 시간의 인식에 대해서는 상반된 점을 알 수 있다. 맥베스와 벵코우 두 사람 똑같이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들었지만, 그 예언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태도는 확실히 다르게 나타난다. 맥베스는 마녀의 예언에 기쁨과 놀라움을 나타내면서 일종의 정신이 홀린(rapt) 상태에 빠진다. 이에 반하여 벵코우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자신의 이성을 잃지 않는다. 맥베스가 마녀들이 모두 사라진 후에 맥베스가 "좀더 머물러 있었으면!"(Would they had stay'd! 1.3.82)라고 했을 때, 벵코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로 있었을 까요?  
 혹시 우리는 이성을 마비시키는  
 미치광이 풀을 먹은 것이 아닐까요?

Were such things here, as we do speak about.  
 Or have we eaten on the insane root.  
 That takes the reason prisoner? (1.3.83)

이러한 벵코우의 대사는 극의 전체 구조와 연관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마녀의 예언에 따르면 벵코우의 자손은 이 왕위에 오르지만 맥베스의 후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미치광이 풀"을 먹은 것은 벵코우가 아니라 황홀상태에 빠져있는 맥베스이다. 그가 "미치광이 풀"을 먹고 정상적인 자연의 성장과정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열매가 열릴 수 있는 나무가 아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맥베스에게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자식이 없다는 사실이 이 점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하겠다. 그로부터 맥베스는 이성이 포로로 잡힌 상태에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이성과 감성이 통합된 합리적인 인간이었던 맥베스는 암살이라는 생각, 즉 미래를 앞당겨 획득하려는 생각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는 맥베스와 관련되고 있는 시간이 그 자신도 모르게 앞서 달려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로스(Rosse)와 앵거스(Anqus)로부터 던칸왕이 내린 "코더 영주"(Thane of Cawdor 1.3.105)라는 칭호로 영접을 받는다. 그래서 맥베스의 정신상태는 더욱 이성을 상실한 채 일종의 황홀상태 속에서 미래를 향한다. 그에게는 오직 미래에 대한 야망만이 있을 뿐이다. "글래미스, 코더 영주, 그리고 제일 위대한 것이 남아 있다."(Glamis, and Thane of Cawdor:

/ The greatest is behind. 1.3.116) 더구나 Duncan왕이 맥베스와 벙코우를 환영한 후 멜컴을 세자인 “컴버랜드 공작”(The Prince of Cumberland 1.4.39)로 임명하자, 이제 맥베스는 자신이 정상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미래를 획득할 수 없음을 깨닫고 암살에 대한 유혹을 서서히 굳혀나가기 시작한다.

컴버랜드 공작!\_\_\_ 이것은 한 계단에 불과해,  
 내가 걸려서 넘어지느냐, 아니면 뛰어 넘느냐하는 거야.  
 그것이 내가 갈 길에 가로 놓여 있으니까.

The Prince of Cumberland!--That is a step  
 On which I must fall down, or else o'erleap.  
 For in my way it lies. (1.4.48)

암살을 식물의 이미지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암살은 바로 계절의 순환 속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한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열매가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장차 맥베스가 왕위에 오른 후 겪게 되는 불면과 고통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우리는 맥베스의 행동에서도 그의 시간개념을 보여주는 경우를 찾을 수 있다. 던칸왕이 맥베스의 성에 행차한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는 앞서 말을 타고 달려가며,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보다 먼저 전령을 보내어 레디 맥베스에게 전갈을 보낸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그의 모든 사고와 행동이 오직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서 일종의 “미치광이”(madness)상태까지 발전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맥베스 부인 역시 맥베스의 편지를 받고 똑같이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를 앞당겨 획득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가장 가까운 방법으로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의 영광인 왕위를 차지하려고 결심한다. 따라서 그녀에게 있어서 현재라는 존재는 전혀 무관심한 대상이며 미래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그녀는 맥베스에게 편지의 의미부여를 확대 해석한다.

당신의 편지는 저를 한치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무지한 현재를 뛰어넘게 하여,  
 지금 저는 이 순간에 미래를 느낍니다. (1.5.56)

The letters have transported me beyond  
This ignorant present, and I feel now  
The future in the instant. (1.5.56)

더욱이 던칸왕을 살해한 후에는 영광스런 미래의 영원한 행복한 삶 속에서 살고 싶어한다.

오늘밤의 큰 일은 제게 맡겨 주세요.  
그 일 여하에 따라서 우리들은 앞으로 지나간 세월을  
절대의 권력을 가지고 만백성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This night's great business into my dispatch:  
Which shall to all our nights and days to come  
Give solely sovereign sway and masterdom. (1.5.68)

그러나 맥베스의 경우에는 현재와 미래간의 갈등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미래획득에 대한 갈망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못지 않게 암살 후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 즉, 맥베스는 오로지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모든 정신이 빠져 있어 미래는 현재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간과 시간 모두를 속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인간들처럼 똑같이 보이기 위해서 현재는 이들의 외관을 장식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세상을 속이려거든,  
세상사람들과 같은 얼굴을 하세요.  
눈에도, 손에도, 혀바닥에도 환영의 뜻을 나타내세요.  
순진한 꽃과 같이 보이게 하시고, 그 꽃 속에 숨어 뱀이 되세요.

To beguile the time.  
Look like the time ; bear welcome in your eye.  
Your hand, your tongue : look like th'innocent flower,  
But be the serpent under't. (1.5.63)

이러한 맥베스 부인의 설득은 마침내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갈등으로 고심하



고 있는 맥베스에게 주효하기 시작한다. 미래의 시간은 과거나 현재와는 단절된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암살 그 자체는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끝나는 것이고, 자신들에게는 스코틀랜드의 왕과 왕비의 세계만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한 번 해버려서, 일이 끝난다면,  
 얼른 해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일 이 암살이,  
 그 결과를 일망타진하여,  
 그 뒤에 오는 여파를 한번에 막아 낼 수 있다면.  
 그리하여 이 일격이 시간의 이쪽 언덕이며 여울인 이승에서,  
 전부가 되고 종말이 된다면,  
 저승은 어떻게 되건 뛰어들어 모험을 하리라.

If it were done, when 'tis done, then'twere well  
 It were done quickly:if th'assassination  
 Could trammel up the consequence, and catch  
 With his surcease success; that but this blow  
 Might be the be-all and the end-all-here.  
 But here, upon this bank and shoal of time.  
 We'd jump the life to come. (1.7.1)

현재의 일시적인 시간은 앞으로 다가올 자신들의 삶인 영원이라는 대양 속으로 빠져 들어갈 “언덕과 여울”(bank and shoal)에 불과하다. 따라서 맥베스는 내세의 응징을 도외시키고 미래를 붙잡고자 갈망한다. 과거는 바닷가의 모래언덕처럼 다가오는 영원이라는 바다에 의하여 곧 씻겨져 나가게 될 것이므로 그는 암살을 실행하고자 결심한다. 그리하여 한번 행해진 일이 “전부와 종말”(the be-all and the end-all)이 되기만 한다면 그는 얼마든지 미래를 붙잡고자 달려나 갈 것이다. 그러나 자연의 이치에 의하여 시간은 언제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상태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맥베스는 자신이 행할 범죄의 결과에 대하여 정상적인 시간의 흐름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침내 맥베스 부인의 설득에 의하여 맥베스는 현재를 조소하고 무시하면서 미래를 획득하고자 결심한다.

나는 결심을 했소.

이 무서운 모험을 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겠소.

자, 갑시다. 그리고 좋은 얼굴로 세상사람들을 속입니다.

마음의 거짓은 거짓 얼굴로 감추어야 하는 법.

I am settled, and bend up

Each corporal agent to this terrible feat.

Away, and mock the time with fairest show;

False face must hide what the false heart doth know. (1.7.80)

결국 2막에 들어서 맥베스는 자신의 범행이 던칸왕을 살해하는 것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이 끝나기를 희망하면서 던칸왕을 살해한다. 현재는 현재로서 끝나고, 다가올 미래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신하면서 결심의 행동을 옮긴 것이다. 처음에 맥베스는 모든 시간의 개념을 "아무리 사나운 날이라도 시간은 흘러간다."("Time and the hour runs through the toughest day. 1.3.148)라고 보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에게 있어서 과거의 행위는 내면의식 속에 잠재해 있다가 끊임없이 고통을 가한다. 이러한 맥베스의 상태에 대해서 맥베스 부인은 비난을 하면서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논리로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What's done is done. 3.2.12)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의 몽유병 장면에서 이와는 정반대의 아이러니를 보게 된다. 자신의 범죄행위는 이제 내면에서 작용하여 언제나 고통과 두려움을 가져다준다. 과거의 행위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속에 살아있고 다시 미래에 영향을 줄 것이다. 몽유병 상태에서 맥베스 부인이 취하는 행동과 "행해진 일은 행해진 것입니다."("What's done cannot be done. 5.1.64)라는 대사와의 첨예한 대조는 이러한 점을 적절하게 반영해 주고 있다. 비극의 핵심은 맥베스나 맥베스부인이 바로 이러한 점을 인식하는데 있다 하겠다.

던칸왕 살해 후 맥베스는 드디어 자신들이 영원히 즐기고 싶던 현재화된 미래를 획득했지만, 과거의 범죄 행위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 끊임없이 작용하여 내면의 고뇌를 일으킨다. 그렇지만 그는 아이러니칼하게도 정상적인 시간의 흐름인 미래가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한다. 먼저 던칸왕의 살해소식이 알려지고 난 후, 맥베스는 슬픔으로 가장하여 "이런 번고가 일어나기 한 시간 전에만 내가 죽었던들, 나는 행복된 일생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을."("Had I but died

an hour before this chance, / I had liv'd blessed time. 2.3.89)이라고 말한다. 맥베스의 이 말은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진실의 무의식적인 토로라는 점에서 아이러니를 담고 있으며 이제부터 그는 고통과 번민의 저주스런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존 머리(John M. Murry)는 맥베스의 시간에 대해서 암살 이전의 시간을 “행복했던 시간”(bless'd time)으로, 암살 이후의 시간을 “저주받은 시간”(accursed time)으로 구별하고 있다(332). 케네스 뮤어(Kenneth Muir) 역시 이와 같은 맥베스의 대사와 관련해서 겉으로 나타난 가식 뒤에는 내면의 진실이 담겨져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73).

여기서부터 머리의 표현대로 “저주받은 시간”의 시작은 과거 그의 범죄행위와 연관해서 나타난다. 그는 평안히 잠을 자지도 못하게 되고, 그가 다스리는 스코틀랜드의 궁전과 국가는 질병과 무질서의 상태에 처하게 된다. 현재의 맥베스는 던칸왕으로부터 빼앗아 온 “옷”(borrow'd robes)을 입은 채 왕으로서 영원히 지속되는 현재 속에서 살고 싶어하지만, 자연의 이치에 따른 질서는 서서히 다가온다. 우선 일차적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거부하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현실적으로 벵코우와 플리언스(Fleance)로 나타난다. 그는 자신이 획득한 현재화된 미래가 다가오는 자연적 질서인 미래와 관련이 없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허사임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맥베스의 비극적 인식은 깊어가고 동시에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저항은 더욱더 잔인한 형태로 발전한다. 맥베스와 달리 아직도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는 맥베스 부인의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말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우리는 독사에게 상처는 주었으나, 죽이지는 못했소:  
상처는 아물어서 전과 같이 될 것이고, 못된 장난을 한 우리는,  
그 독사의 이빨에 다시 물릴 위험성이 그대로 남아 있소.

We have scorch'd the snake, not kill'd it:  
She'll close, and be herself ; whilst our poor malice  
Remains in danger of her former tooth. (3.2.13)

여기에서 맥베스가 지칭하고 있는 것이 맬컴인지 벵코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이 대사는 극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 대단히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맥베스는 벵코우와 플리언스에 대한 암살계획을 이미 세

우고 있었고 현재 그에게 제일 두려운 상대자는 벵코우라고 생각한다. 앞서 마녀의 예언에 의하면 벵코우의 자손이 왕위에 오를 것이라 했기 때문에 그 미래가 다가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의 자연스런 흐름을 거역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저항에 불과하다.

그 마녀들은 그를 역대 제왕의 조상이라고 축복하였다.  
그들은 나의 머리에는 열매 없는 왕관을 올려놓아 주고,  
나의 손에는 나의 자손이 왕위를 잇지 못하고,  
남의 자손이 빼앗을 헛된 왕관을 쥐어 주었다.

.....나의 불멸의 혼을  
.....인류의 적인 악마에게 내준 것도,  
.....그들 벵코우의 자손들을 왕이 되도록 한 것이다.

They hail'd him father to a line of kings:  
Upon my head they plac'd fruitless crown,  
And put a barren sceptre in my gripe,  
thence to be wrench'd with an unlineal hand.  
No son of mine succeeding.

..... and mine eternal jewel  
Given to the common Enemy of man,  
To make them kings, the seed of Banquo kings! (3.1.59)

그래서 맥베스는 암살자들에게 벵코우와 플리언스를 살해하도록 사주하게 된다. 이 경우에 맥베스는 식물과 시간의 이미지력을 사용하여 “너희들에게 잠복할 곳을 알려주겠다. /정확한 시간을 알아서 결행할 시기를 알려 주겠다.”(I will advise you where to plant yourselves, / Acquaint you with the perfect spy o'th'time. 3.1.128)라고 말하는데, 맥베스가 주장하는 이러한 시간은 정상적인 시간이 아니라 음모와 살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또다시 자연스런 시간의 개념을 거역하는 것이다.

결국 현재와는 다른 미래가 다가오는 것을 막아보려 했던 맥베스의 노력은 실패하고 만다. 맥베스는 계속 성장해서 미래의 왕위에 오를 “벵코우의 자손”(seed of Banquo)인 플리언스까지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그의 왕권이 반석 위

에서 견고해지기를 원하지만, 플리언스는 죽음의 위험을 피해서 도피하고 만다. 이제 맥베스에게 남아있는 시간이란 더욱 더 고통과 내면의 갈등으로 가득 찬 “저주받은 시간”이 계속될 것이고, 플리언스는 자연의 순환에 따라 성장하여 맥베스를 뒤이어 스코틀랜드라는 정원에서 왕위에 오를 식물로 자라날 것이다. 그러나 맥베스는 플리언스를 아이러니칼하게도 동물에 비유한다.

큰 뱀은 죽었다. 달아난 새끼 뱀은,  
독사 뱀이 될 것이나,  
지금 당장은 독사의 이빨이 안 될 거야.

There the grown serpent lies : the worm that's fled.  
Hath nature that in time will venom breed,  
No teeth for the present. (3.4.28)

미래가 다가오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던 맥베스에게 현재는 과거의 연속이라는 사실로 인해 커다란 고통이요 형벌이다.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서 마녀에게 다시 찾아간 맥베스에게 마녀들이 예언해준 것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진실 그 자체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며, “무서운 광경”(horrible sight 4.1.122)이라고 괴로워한다. 또한 “이 불길한 시간아/ 달력에 남아서 영원한 저주를 받아라!”(let this pernicious hour / Stand aye accursed in the calendar! 4.1.133)라고 외친 것도 다가오는 세계에 대한 자신의 거역이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성의 상실과 더불어 그의 정신세계는 더욱더 잔인해진다. 아울러 정상적인 미래의 시간은 미래를 거역하는 맥베스의 시간보다 빨리 다가온다. 맥더프가 영국으로 도피했다는 소식을 듣고 맥베스는 “시간아, 너는 내가 하려고 하던 무서운 일에 선수를 쳤구나”(Time, thou anticipat'st my dread exploits. 4.1.144)라고 한다. 이 때 시간이 자기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맥베스는 이제 정상적인 자연의 시간이 그에게는 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덩컨왕을 살해하는 순간의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을 안전하게 흐려 보낸 시간은 맥베스에게는 아군과 같은 존재이었지만, 무너진 사회적 질서를 복원하는 지금의 현재의 시간은 그에게는 적군과 같은 존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Mahood. 135).

맥베스를 파멸시키기 위해 다가오는 “독사”(serpent)는 바로 맬컴이라 할 수

있다. 잉글랜드로 도피한 맥컴은 자연의 정상적인 순환에 의해 성장한 왕자로서 맥베스를 공격할 때는 푸른 나뭇잎으로 위장한 영국의 병사들과 공격해 온다. 이 때 맥베스는 다 시들어 말라버린 나뭇잎과 같은 처지라고 생각한다. “나도 살만큼 살았다/ 나의 여생도 노란 단풍이 들어, 이제 낙엽이 되어 지는구나.“(I have liv'd long enough my way of life / Is fall'n into the sere, the yellow leaf. 5.3.22). 반면에 맥컴은 “군주의 꽃“(the sovereign flower 5.2.30)이다. 또한 영국군의 위장한 “푸른 나뭇잎“(green leaves)은 전통적으로 자연의 재생을 의미하며 맥베스의 불모와 시들어 버린 “노란 낙엽“(yellow leaf)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Holloway. 66) 이처럼 맥베스의 비극적 인식과 더불어 몽유병 장면에서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했던 맥베스 부인의 내면에 숨어 있는 과거의 발로는 정상적인 시간의 흐름을 역행하는 일이며 또한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결국에 가서 맥베스는 의사에게 과거의 기억을 제거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렇지만 살인 후에 그의 과거는 기억 속에서만 살아있고 암살이라는 부정확한 과거는 이들이 처한 현재의 상황 속에 용해되어 현재의 무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죽음만이 시간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질서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알 수 있다. 이제 맥베스 부인의 자살과 더불어 맥베스에게 남은 시간은 지루하고 의미 없는 시간의 연속일 뿐이다. 시간은 서서히 그 압력을 증가시켜 가고 맥베스는 “익어서 흔들면 떨어지는”(ripe for shaking 4.3.238) 신세가 되었다. 필연적인 패배와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맥베스는 자신의 걸어온 시간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내린다.

내일, 또 내일, 또 내일이,  
하루하루 이렇게 느릿느릿 기어간다.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 음절까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제들은 바보들에게  
흙으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 주었다.  
꺼져라, 꺼져, 짧은 촛불아!  
인생이란 단지 걸어가는 그림자; 서투른 배우,  
무대 위에서 거드럭 거리고 애태우다가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것.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

Creeps in this petty pace from day to day,  
 To the last syllable of recorded time;  
 And all our yesterdays have lighted fools  
 The way to dusty death. Out, out, brief candle!  
 Life's but a walking shadow; a poor player,  
 That struts and frets his hour upon the stage,  
 And then is heard no more. (5.5.19)

맥베스가 자신을 바쳤던 “내일”은 결국 바보들을 흙더미 속으로 돌려보내는 죽음의 길로 이끌기 위해 불을 밝히던 “우리가 지나온 모든 어제들”과 본질적으로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의 깨달음의 하나는 그가 모든 희망을 걸었던 내일이 어제와 동일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시간의 복수는 완수된 것이다. 아이러니칼하게도 이 시점에 이르러서도 그는 내일의 발걸음을 ‘느릿느릿 (petty)’하게 느끼며 그 속도가 “기어가”(creep)듯 느리다고 표현하고 있다. 오직 미래, 즉 내일만을 보고자 했던 그는 이제 과거, 즉 어제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시야는 과거와 미래를 향해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 음절까지” 미치는 것이다. 시간과의 경쟁에서 마지막 심판을 내리는 이 시점에서 그의 시야는 우주적인 넓이와 깊이를 갖추게 되었고, “(Life) is a tale / Told by an idiot, full of sound and fury, / Signifying nothing.”(5.5.2)이라는 데에서 그는 최후의 깨달음에 도달하여 이 비극은 절정에 이른다.(Breuer, 263). 다시 말하면 맥베스의 시간개념은 현대 부조리 극작가인 샤뮤엘 베케트(S. Beckett)가 추구하는 시간의 붕괴와 같은 것이며, 그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시간의 불연속성”(discontinuity of time)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맥베스는 질서의 요인인 시간을 붕괴시킴으로써 불모와 광란으로 달려간 결과 영원히 인간사회에서 추방된 이방인이 되어버린 것이라 하겠다. 맥베스가 이처럼 독백에서 밝히는 진실의 표현이 시간의 자연스런 질서에 의한 것임을 알 때 우리는 맥베스와 맥베스 부인의 시간개념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이 비극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맥베스의 죽음과 더불어 그의 저주스럽고 왜곡되었던 비정상적인 시간은 해방되고 자유스러워진다. “자유로운 세상”(the time is free.5.8.21) 그리고 자연의 순리적인 흐름과 더불어 시간의 정상적인 흐름 속에서 스코틀랜드는 새롭게 건설될 것이다. 시간에는 적절한 때가 있는 법이다. 모두가 시간에 순응하

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창조주가 내린 자연의 질서에 복종, 순응하면서 나아가 영원이라는 재생을 수용하는 길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맥베스와 맥베스 부인이 뿌린, 그렇지만 말라 시들어버린 병들어 허덕이는 식물을 뽑아내고 그곳에 새로운 씨앗을 뿌릴 때가 된 것이다. 다시 부연하면 던칸왕이 뿌린 씨앗인 벵코우는 성장하지 못하고 죽어 없어졌지만 벵코우가 뿌린 씨앗인 아들 플리언스는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결국 시간이 상실된 밤의 세계는 물러가고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낮의 세계에서 맬컴은 성스럽게 스코틀랜드의 원상회복에 나서야 한다. 그것은 지금껏 왜곡된 시간을 정상적인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유기적인 시간으로 원위치 시켜야 할 작업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확실히 질서를 회복시켜줄 것임에 틀림없다.

그 밖에 해야 할 일,  
즉, 새롭게 시간을 식목해야 할 일.  
.....그 밖에 필요한 모든 일은  
자비하신 신의 은총을 얻어,  
시간과 장소에 적합하게 이를 처리하겠소.

What's more to do,  
Which would be planted newly with the time.  
..... this, and what needful else  
That calls upon us, by the grace of Grace,  
We will perform in measure, time, and place. (5. 8. 30)

이처럼 맥베스의 왜곡된 시간개념과 정상적인 자연의 흐름인 시간개념의 대립을 보여주는 시간과 식물의 이미지리는 마지막에 가서 질서의 회복과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과 식물의 이미지는 이 극의 주제를 더욱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하겠다.

### III



시간과 헤브라이즘(Hebraism)을 대표하는 기독교 사상의 수평적 시간관이 서로 융합하는 복합적 개념을 나타낸다. 시간의 지속성과 불가역성을 심각하게 수용한 당시의 문학 작품들 역시 시간이 빚어내는 비극적인 감각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었다. 셰익스피어 또한 이에 못지 않게 그의 비극에서 주인공의 성격결합은 물론 비극의 원인과 결과를 시간의 축에서 적절히 묘사하고 구성하여 비극의 내용과 그 의미를 한층 심화 발전시키고 있다. 셰익스피어가 수용하고 있는 순환적인 시간에서는 미래가 닫혀진 불투명한 상황에서 변화와 무변화의 괴리를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시간에서도 인간의 삶은 불가역성에 쫓점을 맞춘 변화에 거스를 수 없는 비극의 변모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적인 등장인물들은 수평적인 시간의 축에서 보면 과거, 현재, 미래로 복잡하게 자리를 옮기면서 다양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바로 극의 행동이 근본적으로 수평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부분적으로 혹은 단편적으로 수직적 시간 현상에도 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인공들이 필연적으로 수용해야만 하는 비극적인 종말 즉, 죽음이 임박한 전후 상황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맥베스』에서도 주인공 맥베스의 비극적 원인은 현재를 뛰어 넘어 미래를 향한 지나친 집념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문학의 한 형태일 수도 있지만 셰익스피어는 맥베스를 통해서 보다 강렬하게 구현시키고 있다. 왕관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의 기대감이나 야심이란 순전히 인간의 욕망으로 이루어진 인간적인 노력과 도전에 불과하다. 직접적인 동기는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초자연적인 세 마녀들이 맥베스에게 전해준 예언으로 그들의 역할은 각각 과거, 현재, 미래로 나타난다. 그는 세 마녀들로부터 이러한 과거, 현재, 미래의 사실을 동시에 듣게 되고 그의 가슴속에서 끓고 있는 야심의 불꽃은 살해하기에 앞서 심각한 회의와 고뇌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맥베스의 야심은 현재를 뛰어 넘어 미래의 “시간의 씨앗”에 대한 방해물을 제거하면서 기대와 가능성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여기에서 맥베스의 중요한 비극적 과오는 스스로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그렇지만 실제로 시간은 맥베스의 편이 아니었다. 그는 이 점을 뼈저리게 통감함과 동시에 필연적인 시간의 흐름에 대한 허무와 절망의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간다. 결국 맥베스의 죽음으로 새로운 질서는 “자유로운 세상”으로 변모하고 해방과 구원을 가져다준다. 아울러 여기에 등장했던 초자연적인 마녀들의 세계와 뱀코우의 혼령은 현실 세계와의

융합을 의미한다. 이것은 셰익스피어가 당시의 관객의 흥미위주로 꾸민 각색의 하나로 간주하더라도 그의 우주관이 심화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이 점이 바로 셰익스피어가 지니고 있는 시간인식이 현세를 초월하여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 인 용 문 헌

- Breue, Horst. "Disintergration of Time in Macbeth's Soliloquy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 *Modern Language Review*, 71, 1976.
- Driver, Tom F. "the Use of Time: 'Oedipus Tyrannous' and 'Macbeth'", *Shakespearean Criticism, Vol.3*. Ed. L.L. Harris and M. W. Scott. Detroit: Gale Research Co., 1986.
- Frye, Northrop. *A Natural Perspective: The Development of Shakespearean Comedy and Romance*. N.Y.:A Harvest/HBJ Book. 1965.
- Guj, Luisa. "Macbeth and the Seeds of Time", *Shakespeare Studies, XVII*, 1986.
- Holloway, John. *The Story of the Night*. London: R.K.P., 1961.
- Knight, G. Wilson. *The Imperial Theme*. London: Methuen, 1951.
- Mahood, M.M. *Shakespeare's Wordplay*. London: Methuen. 1957.
- Muir, Kenneth. "Image and Symbol in *Macbeth*", *Shakespeare Survey, 19*, 1966.
- Parker, Barbara L. "*Macbeth*: the Great Illusion", *Sewanee Review, 78*, 1970.
- Shakespeare, William. *Macbeth: The Arden Shakespeare*. Ed. Kenneth Muir. London: Methuen, 1962.

Abstract

## Macbeth's Time Recognition and Tragic Irony

Ilsang Song

Macbeth's tragedy is his excessive ambition, ignoring his present and trying to create his future. Excessive ambition can be seen as a type of universalized idea in literature and Shakespeare demonstrates this idea through the tragic hero Macbeth. Macbeth's hope and expectation to be King of Scotland is a human desire. The direct cause of his tragedy is the prophecy that 3 witches, supernatural beings, told him on returning to his own country. They represent the past, present and future. Macbeth has a severe and tragic flaw which is encouraged by this prophecy. His tragic flaw is the fact that he tries to consider only his future ignoring his past and present. So his actions and his tragic flaw lead to the murder of King Duncan.

However the justice of present time is not on his side. Macbeth, as King of Scotland, has experienced a painful and lonesome life since Duncan's death. In the end he dies saying that he has wasted his life and has lived a useless and insignificant life. In conclusion, Macbeth's subjective experience of time dislocates the natural order. He forces his time on the world in two ways. On the one hand he accelerates it by hastening Duncan's death; on the other hand, he stops its natural unfolding by trying to prevent the succession of Banquo's progeny.